

시선

친구같은 장애학생 도우미  
더 늘어나길 기대

참여마당



길을 걷다 장애학생을 보면 ‘힘들겠다, 불편하겠다,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 하지만 이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의 도움에 상대방에게는 불쾌함을 안겨줄 지도 모르는 노릇이기에, 멋대로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는 수업을 듣기 위해 평소와 다름없이 청운관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내 바로 앞에는 다리가 불편한 학생이 복도를 걷고 있었다. 여느 학생과 다름없이 가방을 멘 채 강의실을 향해 걷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아마도 비장애인인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속으로는 ‘가방이라도 들어드릴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작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후회와 미안한 마음이 가슴 속에 가득했다.

며칠 뒤 나는 정경대 강의실 앞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이전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내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수업이 끝났고, 뒷문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한 학생이 나왔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문득 ‘이번에는 저번처럼 행동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 그 장애학생을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려고 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나오는 어떤 남학생이 장애학생을 이미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그 둘은 단지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라기보다는 그저 친한 친구 사이 같았다. 뭐랄까,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었다.

장애학생 도우미가 부족해 장애 학생의 불편함을 제대로 해소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장애학생 도우미에 공급증이 생긴 나는 청운관에 위치한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이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장애학생 도우미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이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편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장애 학생이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장애학생 도우미 프로그램의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장애 학생 한 명당 두 세 명의 도우미가 필요한데, 충분한 지원자가 없어 장애 학생의 불편함을 제대로 해소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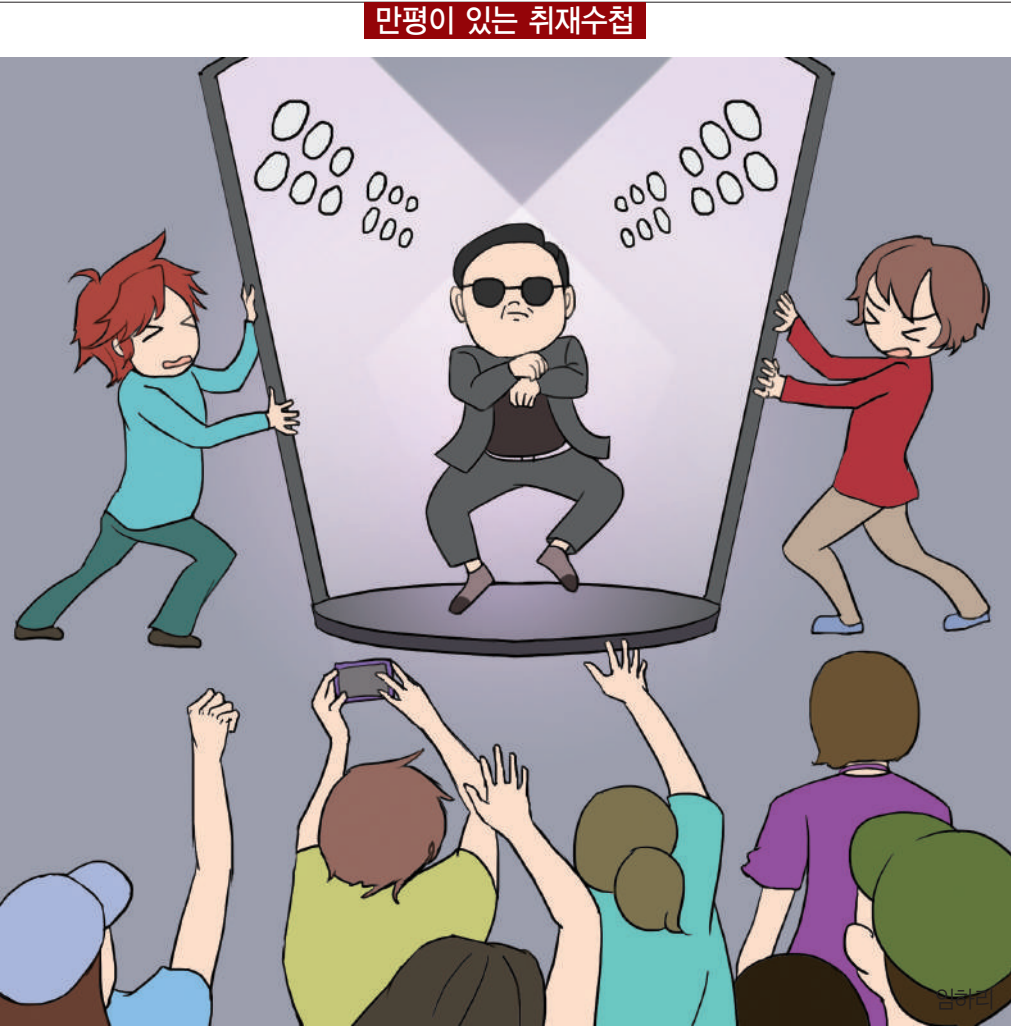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장애 학생 도우미로서 장애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다. 장애 학생에게는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같은 도우미가 좀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 학생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비장애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운 부분을 도와준다면 함께 학교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심태식 前 총장 별세  
향년 92세

미디어 여론동향 2015. 5.4 ~ 5.17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심태식 전(前) 총장이 지난 7일 별세했다.심태식 전 총장 별세/대학주보 온라인, 2015.5.12) 향년 92세. 심 전 총장은 1923년 서울에서 태어나 1951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1955년에 우리학교 교수로 임용됐고, 1960년부터 1년간 한국일보 논설위원, 1966년부터 3년간 경향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1975년에 우리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우리학교 기획관리실장을 맡았다. 이후 지난 1982년 10월 우리학교의 제5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고인은 취임사에서 밝힌 “스승은 존경받고 열심히 가르치며, 학생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받는 학원을 건설하겠다”는 목표 아래 1984년까지



양 캠퍼스 축제기간, 열리는 ‘함께’의 가치  
‘축제’를 팝니다



우리학교의 축제는 다른 대학의 그것보다 역사가 길다. 1956년 10월 20일부터 3일간 진행된 개교 7주년 기념 ‘제1회 대학제’는 우리나라 대학축제의 모태다. 당시 대학제를 앞두고 우리신문은 사실에 ‘재학생 각 개인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만 그 참된 의의를 발휘할 수 있다’와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적었다.

무려 59년 전의 주장이다. 모든 학생들이 기획과 준비에 참여하고 다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온전한 학생문화로서의 축제. 실로 ‘대동제(大同祭)’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것이 당대의 축제문화였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축제는 더 이상 ‘대동제’라고 보기 힘든 것이 되어버렸다. 어느 샌가 대학축제를 대하는 학생들은 ‘기획자’ 아니면 ‘항유자’ 둘 중의 하나로 나뉘어졌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축제기획단, 프로그램 운영자, 그리고 늘 뒤에서 고생하는 청소노동자와 관계부서 직원들은 힘들지만 재밌고, 어렵지만 괜찮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축제를 찾는 이들은, 불편한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축제의 요소요소를 지적하고 평가하기 바쁘다.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부류로 나뉘는 축제가 반복될수록, 화려한

볼거리를 위해 ‘외주’에 기대려는 경향이 틈타게 된다. 참신한 기획이라는 것은 언제나 머리터지도록 어려운 것이고, 웬만해서는 학생들의 좋은 ‘평가’도 받기 어려운 노릇이니, 학생들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의 티켓파워에 축제의 ‘흥행’을 기대려는 것이다. 연예인을 초청하는 일은 축제의 기획자들이 많이 해본 업무가 아니기에, 이를 깔끔하게 처리해줄 수 있는 외주-이들테면 최근 대학가 축제들을 휩쓴 ‘카스’ 콘서트와 같은-업체들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다.

국제캠퍼스 축제 ‘종KHU요’가 지난주 15일 막을 내렸다. 오는 20일부터 서울캠퍼스 축제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시점에서 ‘축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축제가 준비하는 이들과 소비하는 이들로 나뉘는 순간, 그 축제는 더 이상 공동의 가치관이 투영된 화합의 장이 아니게 된다. 그 순간 이후로 축제는 오직 흥행 여부만이 판단지표로 작용하는 단순한 콘텐츠가 되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묶여 상업화되거나 소멸하는 양 단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라는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하다. 이것은 고루한 과거의 관습이 아니며, 오히려 대학축제가 간직해야 할 본연의 가치다. 59년 전 사실에서 ‘우리대학의 전통이 이 기회에 이뤄질 것이니 이번 행사가 본교 발전에 지대한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했던 마음을 이어가길 고대한다.

총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하민아(태권도학 2014) 선수가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리스트인 ‘여제’ 우정위(중국)선수를 꺾고 2015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단 첫 메달을 금빛으로 물들였다.(세계태권도-女49kg급 하민아, ‘여제’ 우정위 꺾고 금메달/연합뉴스, 2015.5.15) 하 선수는 지난 14일 러시아 첼랴빈스크의 트라토르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49kg급 결승에서 우정위를 연장전 끝에 4-3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울산 모비스를 우승으로 이끌고 은퇴한 박종천(스포츠택도학 99) 동문이 부산 케이티 코치로 부임하며 제2의 농구 인생을 시작한다.(부산 케이티, 신임 박종천 코치 영입/바스켓코리아, 2015.5.13) 박 동문은 2003-04 시즌 서울 삼성을 통해 KBL에 데뷔했고, 2007-08년부터 울산 모비스에서 활약 후 은퇴했다. 3점슛과 수비에 강점이 있는 박 동문은 주로 식스맨으로 코트에 나서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3점슛과 수비를 통해 존재감을 보여줬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국제캠 정문 아저씨’(#경희숲\_8639, 2015.5.8)에 관한 내용의

글이 인기가 높았다. 이 글은 126개의 ‘좋아요’와 2개의 댓글을 기록했다. 글쓴이는 “정문 앞에서 합창계 거수 경례를 해주시는 아저씨가 정말 멋지다”며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진다”고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합창계 거수경례를 하는 아저씨를 보면 저도 힘이 나요”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마크 리퍼트(Mark William Lippert) 주한미국대사와의 타운홀 미팅’이 지난 7일 네오르네상스관 네오누리에서 열렸다.(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의 타운홀 미팅/대학 홈페이지 Focus, 2015.5.8) ‘같이 갑시다! 주한미국대사와 한국 미래세대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 미팅에는 학생, 교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리퍼트 대사의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리퍼트 대사는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대화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관계는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등 강화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가자”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이버, 기술, 우주, 에너지, 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교육부의 ‘안전관리 대책’  
‘책상 위’ 행정의 전형

세시봉



교육부는 매년 반복되는 대학교 수련회, MT, 오리엔테이션(OT) 등의 음주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4일 ‘대학교 MT 등 학교행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학생들이 수련회나 MT 등을 가기 전에 학교 측이 ‘자체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입생이 참가하는 OT가 실시되기 전에 응급처치와 음주문화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 이후 외부에서 진행되는 각종 연수와 신입생 OT에 대해 안전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사고대처 방안 등을 담은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학생활동의 자치를 침해한다’는 반발만 불러왔을 뿐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대학행사에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문만 발송하는 ‘뺨질식 처방’만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올해 초 대학에 보낸 공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대학교 MT 등 학교행사 안전관리 대책’의 구체적인 항목인 ‘학생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비상약품을 지원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은 이미 지난해에 발송한 내용의 ‘동여반복’에 불과하다.

또한 학교 측이 마련해야 하는 ‘자체안전 확보 방안’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나 매뉴얼이 없어 또 다시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허술한 대책은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될 수 없다.

목적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학’마다의 문제 정도부터 파악해야 한다

‘과음’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한다. 오히려 MT나 OT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육부의 협소한 시각을 넘어서 학교 축제부터 동아리 행사, 개강총회 등 학생문화 전반에서 자주 목격되는 과도한 음주문화는 항상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학교 학생회나 절주동아리 등의 활동사례처럼, 축제 전 주점운영자들을 모아 음주관련 교육을 하고, 주류지원 사업을 토대로 그 ‘양’을 조절하는 등의 세밀한 방식이 더 효과적인 것은 분명하다.

교육부가 ‘대책’이랍시고 일방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방식은 본질에 닿지 못한다. 책상 위와 현장은 늘 다르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당장 우리학교 안에서도 단과대학마다, 학과마다, 심지어 사람마다 공유하고 있는 음주문화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조치는 옛날 ‘문교부’시절에나 통할 일이다. 진정으로 목적으로 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학’마다의 문제의 정도부터 파악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과 같은 ‘국가교육의 명운이 걸렸다’던 사업조차 기준도, 목적도, 방법도 휘청대는 조직에게 너무나 큰 기대일 지도 모르겠지만.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3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레기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3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